

# 순창장류 활용 '순창삼합' 주목

# 세계 한인 기업인에 임실 홍보

### 군, '순창삼합' 판매 음식점 4개소 현판식 진행... 미식 관광 도약 기대

순창군이 순창 장류의 깊은 맛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독창적인 요리를 개발해 순창 음식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순창고추장볼고기'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올해는 순창의 3대 특산물인 고추장, 간장, 된장(청국장)을 활용한 '순창삼합'을 새롭게 선보여 미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순창장류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순창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자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군은 22일 '순창삼합' 판매 음식점 4개소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순창장류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순창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자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군은 22일 '순창삼합' 판매 음식점 4개소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현판식을 갖은 대궁, 녹원, 금은옥, 뜨란재 등 4개소는 그동안 4회에 걸친 레시피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상의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며, 이날 '순창삼합' 브랜드 음식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 선보인 '순창삼합'은 순창의 전통 장맛을 독특하게 재해석한 특화 음식이다. 고추장으로 매콤달콤하게 조리한 장어구이, 잘 숙성된 간장의 감칠맛과 깊은 맛이 배어든 간장김치, 그리고 청국장의 담백함과 구수한 향

이 어우러진 수육까지 각각의 요리가 순창의 정 맛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랭 1스타 셰프인 유현수 셰프와의 협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 온 유 셰프의 전문성과 순창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순창삼합'은 벌써부터 미식가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오는 10월 말부터 인기 먹방 유튜브버들과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SNS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순창의 정체성을 담은 디지털 메뉴 개발도 현재 추진 중으로 순창군이 선보일 새로운 미식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삼합은 단순한 새로운 메뉴가 아닌, 순창군의 미식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킬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순창이 한국의 대표적인 미식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관광·특산물 홍보 마케팅 펼쳐

임실군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관광 및 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대회 전시관 밖에 전복차지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 세계 한인 기업인들에게 임실군 주요 관광지와 산업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홍보부스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등 특색있고 매력적인 임실군만의 관광 자원과 2024 임실 산타축제, 2025 임실 방문의 해, 임실 영경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심 민 군수도 개막 첫날인 지난 22일 대회장에 위치한 임실군 홍보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특산물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다.

군은 △2024 산타축제 방문 약속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 △2025 임실 방문의 해 톨렛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통해 입방, 핸드크림, 차량용 티슈, 보조배터리 등 기념품을 증



정하여 대회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부스 맞은편 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요거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한 자리에서 구경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실치즈 판매장을 운영하며, 무료 시식 등 다양한 관측 행사도 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에게 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임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찾아가는 경로당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 실시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에 나섰다.

군은 연말까지 관내 22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천적 장애는 낙상사고, 만성 질환 악화, 외상 등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일컫는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재미있게 운동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면서 "매일 꾸준히 따라 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장애예방과 건강증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남원시는 23일, 경기도 오산시장에서 최영석 남원시장, 이원재 오산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발전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예술, 체육, 행정 등 각 분야에서 협력·교류하여 우호 증진 및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시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시의 각각 강점이 커다란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추후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경제 중심의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주민 혜택 홍보를 통한 남원누리시민 증대,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협약 체결 등을 앞으로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드론 배송 사업 '순조'

남원시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새로운 물류배송 서비스인 드론 배송 사업을 지난 4일 개시해 순조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남원형 실증모델 3개 과제(드론 배송, 공간정보 행정서비스, 드론레저 플랫폼 개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은 드론 전문업체인 (주)에피파와 함께 국토부의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드론배송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배송거점 2개소와 배달점 10개소를 설치, 드론비행 전용기체, 비행로 인증, 드론안전관리시스템 및 유통물류 앱을 구축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배달점에 설치한 안내현수막 QR코드로 접속, 앱 다운로드 후 물품 주문을 통해 드론이 배송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붕어섬 생태공원' 관광객 인산인해

### 임실군, 가을꽃 만개... 20일 기준 35만4000여명 방문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가을꽃들이 만개하며,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군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국화와 구절초, 코스모스 등 가을꽃 경관을 보기 위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35만 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자 수인 34만 7천여명을 넘어섰다.

특히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6~7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군은 올해 9월 말 임실치즈축제를 맞춰 풍성한 가을경관 조성을 위해 기존 계획 수량보다 1,650분이 더해진 총 13,900분의 국화 화분을 붕어섬 생



태공원과 요산공원에 배치했다.

국화와 가을 초화류, 구절초를 감상하며 붕어섬을 거닐다 보면 메타세콰이어길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핀 꽃 동산을 만날 수 있다. 임실군은 코스모스 조성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00㎡의 면적에 코스모스를 파종·이식 재배했다.

여기는 붕어섬의 꼬리 부분으로 붕어섬의 아름다운 수변에 가을 역사가 흔들흔들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경관으로 자리 잡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어울림 도서관 25일 개관

남원시가 시민의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한 공공도서관, 어울림 도서관을 오는 25일 개관식을 가진 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된 도서관은 국도비 59억 등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 2021년부터 건립 공사를 추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2,163.31㎡의 규모로 2024년 6월 준공했다.

신축 도서관은 △지하 1층 보존서고 △지상 1층 유아자료실(수유실), 통합

안내데스크 △지상 2층 어린이자료실, 영어특화실 △지상 3층 일반자료실, 영상콘텐츠관람실 △지상 4층 디지털존, 자유열람실 등으로 조성됐으며, 소장 도서는 총 1만6,714권으로,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임실군, 수도시설 위생관리 실태 점검

임실군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확인 등 맑은 물 공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시설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 환경 위기관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관내 정수장 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수 처리 공정별 유출 모니터링, 방출망 및 이종문 상태 점검, 유출 차단 시설인 포충기, 에어커튼 등 정상 작동 여부, 정수 처리시설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상수원의 물 환경 변화로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